



W.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

www.tax.ny.gov

보도 자료: 뉴욕주 세무국, 42,000 명의 납세자에게 약 80 종의 비영어권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어 세무 지원 서비스는 518-453-8137 번으로 요청 가능

즉시 배포용: 2014 년 6 월

연락처: Geoffrey Gloak

geoffrey.gloak@tax.ny.gov

(518) 457-7377

뉴욕주 조세 및 재무국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납세자 42,000 명 이상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통한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세무국은 2012 년 10 월 언어 액세스 프로그램(Language Access Program)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 기간인 올 4 월 말까지 42,415 명의 사용자가 납세자 정보 센터(Taxpayer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79 개의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국의 통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 년에서 2014 년 사이 소득세 신고 기간 중 서비스 이용 수요는 56%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된 언어는 스페인어(31,266 통화), 만다린 중국어(3,842 통화) 및 러시아어(3,020)의 순으로 나타났고 위의 3 개국어가 전체 통화의 90%를 차지했습니다. 기타 60 개국어와 관련된 통화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바라어(말리), 티그리냐어(에티오피아) 및 타이산어(중국) 등 수십 종의 지역 언어에 대한 수요가 낮았습니다.

Thomas H. Mattox 국장은 "모든 뉴욕 주민은 사용하는 언어와 관계없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모든 주 기관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무국의 서비스 결과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의 당위성이 증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의 행정 명령 26 조(Executive Order 26)에 따라, 세무국은 주요 간행물을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영어권 언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Español \(Spanish\)](#)
- [中文版 \(Chinese\)](#)
- [Русская версия \(Russian\)](#)
- [Italiano \(Italian\)](#)
- [한국어 \(Korean\)](#)
- [Kreyòl ayisyen \(Haitian Creole\)](#)

세무국 언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518-453-8137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